

북한 여자축구의 벽 여전히 높았다

동아시아컵 윤덕여호 고전 끝 0-1 패...2005년 이후 승리 없어

한국 여자축구가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남북 대결에서 패하면서 12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11일 일본 지바의 소가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북한과 대회 2차전에서 전반 18분 상대 '골잡이' 김윤미에게 내준 헤딩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해 0-1로 패했다. 2005년 제1회 대회 우승팀인 한국은 지난 8일 일본과 1차전에서 2-3으로 패했고 북한과 2차전도 2연패로 일찌감치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더불어 2005년 이 대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역대 첫 승리를 따낸 한국은 이후 12경기 연속 무승(2무 10패)에 빠졌고, 역대 전적에서도 1승 3무 15패로 꼴찌였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1차전에서 2-0으로 이긴 이후 2차전에서 한국까지 물리치면서 2연승으로 우승 고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윤덕여호는 오는 15일 중국과 최종전에서 3위 자리를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태극 여전사'들은 남다른 투지로 경기에 나섰다. 북한은 왕성한 체력과 빠른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유영아(구미 스포츠토트)를 최전방 원

톱 공격수로 세우고 한채린(위덕대), 이민아(고베 아이나 입단예정), 장승기(현대제철), 강유미(화천KSPO)를 2선에 배치한 4-1-4-1 전술로 나선 대표팀은 김윤미와 송향심을 앞세운 북한과 초반부터 대등하게 맞섰다. 한국은 전반 3분 만에 첫 코너킥을 따냈지만 북한 수비에 막혀 슈팅 기회를 잡지 못했다. 북한 역시 공수 간격을 좁게 나선 윤덕여호의 콤팩트한 전술을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팽팽한 중원 접전이 이어졌다. '0의 균형'을 깬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전반 18분 송향심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부근으로 쇄도한 리향심에게 볼을 투입했다. 리향심의 크로스를 받은 김윤미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머리로 볼의 방향을 골대로 돌렸고, 볼은 한국의 왼쪽 골대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했다. 김윤미는 중국과 1차전에서 2골을 터트린 데 이어 이날 득점까지 기록하며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 '선제공격을 따낸 북한은 반격을 시도하는 '태극 여전사'를 월등한 체력을 앞세워 끊임없이 압박하며 슈팅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39분 왼쪽 코너킥을 따냈



11일 오후 일본 지바현 소가 스포츠평크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여자부 2차전 한국 대 북한 경기에서 한국의 이민아가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북한 수비수에 막혀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전반을 소극 없이 마쳤다. 반면 북한은 후반 36분 '골잡이' 김윤미를 체력 안배 차원에서 빼주며 여유롭게 경기를 이어갔다. 윤덕여 감독은 경기 끝난 뒤 방송 인

터뷰에서 "북한의 월등한 체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든 경기를 지켰다"라며 "북한의 가동력 축구에 대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스피드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남은 중국과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퇴한 피겨스타 아사다 마라톤 완주

4시간 34분 13초 기록

'김연아의 라이벌'로 은반에서 경쟁하다 현역에서 은퇴한 일본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아사다 마오(27·사진)가 처음 도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에 성공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11일 "아사다가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5회 JAL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4시간 34분 13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보도했다.



아사다는 자신의 첫 마라톤 완주 소감에 대해 "목표로 했던 4시간 30분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일단 완주를 해서 다행"이라며 "점수를 매긴다면 80점 정도"라고 대답했다. 아사다가 생애 처음 마라톤에 도전한 호놀룰루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다. 이날 연보라빛 야구모자에 검은색 상하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레이스에 나선 아사다는 "길가에서 '마오'라고 외치는 많은 팬의 성원을 받아 피겨 경기를 할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15km 지점부터 지난 11월 다했던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20km 지점부터 몸이 무거워졌다. 마라톤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은퇴 이후 아이스쇼와 CF 촬영 등에 집중하던 아사다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 차원에서 지난 9월 마라톤 입문을 결심했고, 전속 트레이너와 함께 집중훈련에 나섰다. 3개월여 훈련을 마치고 처음 도전한 마라톤 풀코스(42.195km)에서 아사다는 4시간 34분 13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2868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사이클 월드컵대회서 잇따라 한국신기록

남자단체 추발·여자 스프린트

한국 사이클이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과 메달 소식을 연달아 알렸다. 엄연영 감독이 이끄는 사이클 대표팀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17-2018 국제사이클연맹(UCI) 제4차 트랙월드컵 대회 남자 단체추발 1라운드에서 4분 0.773초를 기록해 한국 최고기록을 새롭게 썼다. 김옥철(서울시청)·민경호(서울시청)·박상훈(서울시청)·임재연(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남자 단체추발 대표팀은 지난 2월 인도에서 열린 트랙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자신들이 기록한 4분 1초 835를 스스로 넘어섰다. 그러나 최종 4위로 아쉽게 메달 획득

에는 실패했다. 대표팀은 전날 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윌)이 여자 스프린트 한국신기록(10초810)으로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뒤, 동메달을 목에 거두는 성과를 냈다. 이혜진은 이날 김원경(대구광역시청)과 함께 여자 단체 스프린트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혜진-김원경은 지난 4일 캐나다 밀턴에서 열린 제3차 트랙월드컵을 이어 2개 대회 연속 여자 단체 스프린트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남자 단체 스프린트 종목에서는 손재우(부산지방공단스포윌)·임재민(금산군청)·박재원(경북체육회)이 3위를 차지, 한국 사이클 남자 단체 스프린트의 월드컵 대회 첫 동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오늘 북한전...“우리가 설욕해 주마”

“북한 결코 쉽게 생각안해
역습 방지하고 승리할 것”

취임 이후 첫 '남북대결'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은 북한전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던지고 승리를 다짐했다. 신태용 감독은 북한전을 하루 앞둔 11일 대표팀 훈련이 열린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필드 니시카오카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

한이 잘하고 있고, 그들의 색깔이 있더라"면서 "알고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9일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중국과의 첫 경기에서 2-2로 비긴 대표팀은 12일 오후 4시30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2차전에 나선다. 2연패 도전을 위해선 놓칠 수 없는 한 판이다. 신태용 감독은 "북한에 일격을 먼저 당하면 안 된다. 1차전 상대인 일본도 먼저 당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잘

하는 역습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북한을 두고 "열심히 뛰고 투쟁력이 좋더라. 한 명도 소홀히 뛰는 선수가 없었다. 23번 스트라이커 선수(김유성)가 상당히 빠르게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중국전에 대해서 "내용과 과정은 완벽했다"며 "2선 침투 등에서 중국을 가지고 놀다시피 했는데 90분 내내 실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아쉬웠

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상대 2선을 거치지 않고 1선으로 넘어오는 킥에서 우리 볼받지 선수들이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위험한 상황 안 나왔을 텐데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게 아쉽다. 상대가 길게 뻗 때 간격이 벌어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한 팀과 만날 텐데, 상대가 쉽게 크로스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태용 감독은 북한과의 경기에선 선수 기용에 다소 변화를 줄 방침이다. 그는 "북한전에서 선수단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연합뉴스



- 12월 13일(수)
 - ▲광주청룡산악회 12월 13일(수) 전남 고흥 마복산(539m), 백운로타리아어벙크랏07 : 50, 고직원공제회관 08 : 00, 예술회관후문 08 : 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 : 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12월 17일(일)
 - ▲광주백암산악회 12월 17일(일) 화순 백아산 송년산행, 월드컵주차장 07 : 00, 문예후문 07 : 20, 북부경찰서 07 : 30, 문흥현대 07 : 40 *다음카페 광주백암산악회 ☎ 010 2425 4300, 010 3604 8589
 - ▲광주한울산악회 12월 17일(일) 흥성동 봉산&수암산 송년산행, 운전저수지 07 : 15, 금호사거리 07 : 20, 남광주농협 07 : 30, 조대치대 07 : 35, 서방사거리 07 : 40, 문예후문 08 : 00, 비엔날레주차장 08 : 05 *네이버카페한울(http://cafe.naver.com/hanall) ☎ 010 3625 5234, 010 3613 8125
 - ▲광주한길산악회 12월 17일(일) 해남-달마산 미황사 도솔암, (구)상무정 07 : 00,

- 무각사 7 : 10, 광주역한국시멘트 건너편 정류장 7 : 20, 동광주휴플러스 7 : 30 *다음카페 광주한길산악회 ☎ 010 3635 1707
- ▲전남산악회 12월 17일(일) 해남읍 금강산(483m), 영주체육관 07 : 30, 온진각 앞, 양동, 광주역 08 : 00, 두암동휴플러스 08 : 10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3625 1821
- ▲광주새무등산악회 12월 17일(일) 전남, 진도군(남향산 164m, 웰빙로)탐방, 07 : 40 부일공업사출발, 광주역 08 : 00, 예술회관후문경유 08 : 10 *다음카페 광주새무등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 ▲광주오산회 12월 17일(일) 임실 오봉산 물안개길 산행, 영주체육관 06 : 30, 무각사 06 : 40, 비엔날레주차장 06 : 50,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앞 07 : 00 *다음카페 광주오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 ▲광주청정산악회 12월 17일(일) 부산 이기대길 산행, 월드컵경기장(상무정반대편) 05 : 20, 봉산동 한일병원 05 : 30, 산수오거리 05 : 35, 광주역/앞 05 : 45, 운암동(문화예술회관)후문 05 : 50, 비엔날레주차장 06 : 00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0 2798 3994, 010 8627 9945
- 12월 20일(수)
 - ▲광주청룡산악회 12월 20일(수) 경남 거창 금귀봉-보해산(656m), 백운로타리아

- 이어벙크랏07 : 50, 고직원공제회관 08 : 00, 예술회관후문 08 : 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 : 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12월 23일(토)
 - ▲광주호산회 12월 23일(토) 영동 월류봉, 06 : 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 : 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 12월 24일(일)
 - ▲광주산사모산우회 12월 24일(일) 화순 모후산(송년산행), 영주 모아레포즈 입구 07 : 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50, 문화예술회관후문 앞 08 : 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 ▲광주자연보전담사회 12월 24일(일) 남해 응봉산~설화산(경남 남해군), 영주체육관 07 : 00, 무등경기장 07 : 20, 동광주휴플러스 07 : 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광주오산회 12월 24일(일) 남해 금산 38경 비경과 함께 힐링산행, 영주체육관 06 : 30, 무각사 06 : 40, 비엔날레주차장 06 : 50,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앞 07 : 00 *다음카페 광주오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 12월 27일(수)
 - ▲광주청룡산악회 12월 27일(수) 전남 장성 장성호 수반트레킹(7.3km), 백운로타리아어벙크랏07 : 50, 고직원공제회관 08 : 00, 예술회관후문 08 : 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 : 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12월 30일(토)
 - ▲광주호산회 12월 30일(토) 덕유산 향적봉, 06 : 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 : 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 12월 31일(일)
 - ▲광주한울산악회 12월 31일(일) 한해를 마감하는 지리산 천왕봉 일출산행, 12월 30(토) 영주체육관 23 : 30, 무각사 23 : 40, 비엔날레주차장 23 : 50,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앞 24 : 00 *다음카페 광주오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 1월 1일(월)
 - ▲광주한울산악회 1월 1일(월) 완도 약산 삼문산 해돋이산행 & 완도돌렛길트레킹, [조식, 점심제공] 남광주농협 04 : 00, 서방사거리 04 : 10, 문예후문 04 : 25, 비엔날레주차장 04 : 30 *네이버카페한울(http://cafe.naver.com/hanall) ☎ 010 3625 5234, 010 3613 8125

- ▲광주한울산악회 1월 1일(월) 완도 약산 삼문산 해돋이산행 & 완도돌렛길트레킹, [조식, 점심제공] 남광주농협 04 : 00, 서방사거리 04 : 10, 문예후문 04 : 25, 비엔날레주차장 04 : 30 *네이버카페한울(http://cafe.naver.com/hanall) ☎ 010 3625 5234, 010 3613 8125
- 1월 1일(월)
 - ▲광주한울산악회 1월 1일(월) 완도 약산 삼문산 해돋이산행 & 완도돌렛길트레킹, [조식, 점심제공] 남광주농협 04 : 00, 서방사거리 04 : 10, 문예후문 04 : 25, 비엔날레주차장 04 : 30 *네이버카페한울(http://cafe.naver.com/hanall) ☎ 010 3625 5234, 010 3613 8125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12-1 번지 108동 2402호 (각화서회 스타힐스)

계약자 : 나 수위
위와 같이 분실 공고함.
2017년 12월 12일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에 의해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지정장소로 임의의 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산8-8
2. 분묘가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판결판사
4. 개장방법 :
 - 유언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개장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목로 940-27 학원사방안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인치기간 : 인치 후 10년
8. 신고처 : 아유정 010-7171-6963
9. 기타 : 상기 지번 내에 사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2월 11일
공고인 이원진 이민희 이우정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기억의 밤
2관	꿈, 기억의 밤
3관	어쌔신 : 더비기닝, 무서운 꿈
4관	메리와 마녀의 꽃
5관	꿈, 오리엔트 특급 살인
6관	꿈
9관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 오리엔트 특급 살인
7관 써니극장	은혼, 마음의 외치고 싶어해
8관 써니극장	라라랜드, 반드시 잡는다

단체 및 대리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꿈을 꾸는 화가 이영철 & 정영모 12.6(수) ~ 3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adieu 2017 송년음악회 2017.12.12 (화) 19:00 12월 12일 (화) 19: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젠틀레인 제2회 송년음악회 (K1) 2017.12.20 (수) 7: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HANDEL, MESSIAH 2017.12.20 (수) 7: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